

시덥잖은 능력
시덥잖은 인생

그들의 인생 역전이 시작된다!

능 력 자 들

시놉시스

어릴 시절 '기인열전'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가진 초능력을 뽐내던 동건, 치규, 주하, 소라. 채영은 TV 출연을 계기로 친구가 된다.

이들이 가진 초능력은 매우 소소한 것으로

먼저 동건은 사물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지만 100원짜리 동전무게 이상은 불가능하고

채영은 누구든 0.1초만에 최면이 가능하지만 자신한테 욕하거나 화낸 사람에게만 최면이 가능한데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최면이 풀린다

또 소라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아주 똑같이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지만 하루에 한번밖에 변조를 못하고 한번 변조하면 그날 밤 12시가 지나야만 자기 목소리로 돌아온다

주하는 100미터를 3초안에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30미터를 달리고 나면 1분을 쉬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치규는 숨이 붙어있는 한 자가 치유능력이 있지만 불을 붙여야만 치유가 되며 불을 붙일 때 순간적으로 힘이 증폭되는 초능력이 있다. 불이 꺼지면 힘이 사라진다.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되지만 친구들의 이런 소소한 초능력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돈을 벌거나 남들에게 큰 이목을 끌지는 못한다.

시업장은 능력자로 살기에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현실은 너무 뻥뻥하다.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고, 출연 이후 연락이 뜸해지면서 일부 친구들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동건의 친동생 동희가 버스 강도들에게 월세 낼 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 마침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능력자 동창 채영이 최면을 걸어 동희를 구해주게 되고 동희가 그녀를 알아보면서 이들 동창 모두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여기서 동희는 달리기 능력자 주하에게 첫눈에 반한다.

동창들 역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동건처럼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한탄을 하던 도중 뉴스를 통해 전국 최대 조폭 조직 '영도파'가 정치비자금 2400억원어치의 금괴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소라는 그 뉴스를 보더니 자신의 7년 단골인 '영철'이란 고객이 영도파 넘버2라고 자랑하는데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자 5명의 동창 능력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영철을 꼬드겨 금괴를 털자고 한다. 모두가 이놈의 밑바닥 인생을 끝낼 절호의 기회라는 것에 동의하고 의기투합한다.

금괴를 털기 위한 계획은 머리가 제일 좋은 채영이 중심이 돼 세워진다. 한편 동건은 자신이 일하는 강원도의 한적한 나이트클럽의 가수 '미료'와 연인관계인데, 사실 미료는 영도파 회장의 딸이며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걸로 오해하고 가출해 '제니'란 이름으로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미료는 동건의 계획을 듣고 아빠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란 걸 알고 자신이 영도파 회장 집 파출부 딸이기 때문에 집안 구조를 잘 안다고 합류시켜 달라고 한다. 팀으로선 적극 환영한다며 미료를 팀원으로 받아들인다.

먼저 팀은 초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영이 일하던 룸살롱 현금을 털기로 한다. 채영의 계획대로 무사히 현금을 장만하는데 성공한 팀은 금괴 2400억을 털기 위한 특수 장비들을 마련한다.

미료는 집안 구조와 금괴가 놓인 장소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채영은 50여명의 집안 경호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각자의 초능력을 분배하고 이들은 실행 전 연습까지 무사히 마친다. D-day는 영도파 회장 조영도가 강원도에 돈세탁을 위해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한적한 교회 설립 오픈식에 참석하는 날로 정했다. 왜냐하면 금괴가 교회로 옮겨지게 되면 더 이상 금괴를 훔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D-day! 영도파 부하들은 조영도회장 수행을 위한 팀과 금괴를 지키는 팀으로 나누어 오픈식을 준비한다. 소라는 자신의 능력인 목소리를 이용해 금괴 팀을 최대한 수행 팀으로 몰아 금괴 팀 숫자를 줄이는 사이 능력자 일행은 제니를 앞세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며 천신만고 끝에 2,400억원 어치의 금괴를 갖고 나오는데 성공한다. 팀은 축제분위기에 휩싸인다.

금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안 조영도는 분노한 채 전 조직에 비상령을 내리고 이들의 행방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능력자 일행은 각자 400억원의 금괴를 나누어서 보관하기로 하고 채영은 한국에서 이 금괴를 처분할 수 없어 해외 장물 큰손과 접촉하려고 시도한다.

문제는 치규다. 치규는 아버지의 사채 빚으로 늙은 어머니에게 그 빚이 넘어와 사채업자에게 어머니가 납치된 상태고 당장 내일까지 입금을 안 하면 어머니의 콩팥 한 쪽이 팔려갈 상황이다. 좌불안석에 빠진 치규는 금괴가 당장 현금이 안 되자 급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금괴 하나를 금은방에 판다. 금은방 주인은 금괴를 의심하고 영도파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영도파는 금괴를 훔친 일당에게 약간의 초능력이 있음도 알게 된다. 영도파는 행동대원을 치규의 집으로 급파한다. 하지만 치규는 집에 없고 대신 동희와 주하가 데이트하다가 치규와 함께 하려고 왔다가 영도파 부하들과 조우한다. 주하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도망을 간다. 동희를 업고 뛰는 것이다. 감히 영도파 부하들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능력을 쓰다가 그만 찾길에서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차에 치여 피투성이가 되고 만다. 동희는 길가에 내던져져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을 잃었고, 영도파 부하들은 동희를 납치해 간다.

이 소식을 들은 일행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치규의 행동을 비난한다. 게다가 제니가 사실은 조영도회장의 친딸임을 밝혀지자 능력자 일행은 분란에 휩싸이고 만다.

하지만 동건은 동희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친구들을 설득한다. 팀 역시 금괴보다 동희가 소중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금괴를 돌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극악한 무리인 영도파가 순순히 약속을 지킬지도 의문이다.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하는 팀원들... 그러자 제니가 나선다.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한다. 무사히 동희를 돌려받을 때까지 능력자 팀의 인질이 되면 안전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팀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제니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주하가 혼수상태여서 그의 금괴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것. 어쩔 수 없이 가짜금괴로 대체한 팀은 영도파가 정한 약속장소로 출발한다.

영도파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기가 질리는 능력자 팀. 동희와 금괴를 맞바꾸기 전에 금괴를 확인하러 온 부하 한 명이 금괴를 보며 가짜임을 눈치 채는 순간 채영이 최면을 걸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동희를 돌려받는다. 그리고 인질인 제니 역시 영도파에 넘겨준다.

모든 것이 잘 끝난 듯했지만... 자신의 집까지 털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조영도 회장은 능력자 일행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다. 아! 제니를 너무 빨리 넘긴 것이다!

진짜 위기에 처하는 일행! 동건 치규 채영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맞서 싸우지만 수적인 열세와 싸움으로 단련된 조직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계속 열세에 몰리다 급기야 동전을 날리며 활약하던 동건이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처절하게 얻어맞으며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바로 이때 동건의 모습을 보던 동생 동희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하더니 각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이 부르르 떨리자 주변의 모든 사물과 건물이 떨리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희의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다. 급기야 동희가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자 모두가 황기듯이 고꾸라지고 내부에 적재돼 있던 물건들이 무너지며 영도가 깔리게 된다.

동희는 자신의 기를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것이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초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희는 각성을 한 후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이틈을 타 소라는 준비해두었던 차를 가지고와 동건 제니 동희 치규 채영을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한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치며 영도파 일당을 검거하고 금괴도 모두 회수한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즈음... 달리기 능력자 주하가 의식을 되찾게 되고 그가 숨겨 놓았던 400억원 어치의 금괴 행방이 드러난다.

그렇게 원하던 금괴를 손에 넣는 일행.

애초 목표보다는 적지만 팀원들은 금괴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며 꿈꾸던 미래를 떠올리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The End